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여러분은 ‘죽음’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죽음’하면 부자유스러움과 속박을 떠올리게 됩니다. 죽음을 맞은 분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묶이고 관속에 갇혀 땅에 묻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적인 모습만 생각한다면 죽음은 분명 속박이요 부자유스러움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죽은 라자로도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죽은 라자로의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폐쇄된 공간에 갇힌다면, 여러분의 자유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여러분은 죽음의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은 자유로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울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것도 “우리가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로마 8,21)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라자로를 다시 살리실 때 이렇게 외치십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처럼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나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하는 이 부르심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한 번 넣어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도 이렇게 불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역한 냄새가 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육체적인 욕망이든 물질에 대한 집착이든 미움이든 아집이든 편견이든, 우리가 그런 것들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증오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심사가 뒤뜰립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에 묶여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면서 삽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렇게 갇혀 있는 한 우리는 생명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많은 것들에 묶이고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도록 부르십니다.

“()야, 이리 나와라.”



강철현 미카엘 신부 | 월영분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화 답 송
제 2 독 서
복 음

에제 37,12ㄹ-14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로마 8,8-11
요한 11,1-45 또는 11,3-7,17,20-27,33ㄹ-45

주교회의 2023년 춘계 정기총회 결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3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춘계 정기총회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가 제출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개정안)를 승인하였다. 현재 승인된 '사목 지침서'는 1995년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사목 지침서'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교회법위원회는 '사목 지침서 개정 소위원회'(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17년 12월 4일 회의 승인)를 구성하여 현 지침서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규범적인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것과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할 지침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지침서의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개정안은 사도좌의 인준 절차를 거친 다음에 공포될 예정이다.
- 주교회의 2020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개정안)[영문: Ratio Nationalis: Program for Priestly Formation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revised draft)]이 사도좌의 추인을 받았음[교황청 성직자성(현 성직자부)의 2021년 9월 14일 자 공문(Prot. N. 2021 2760)]을 확인하였으며, 성직자부의 요청에 따라 몇 가지 수정 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본을 사도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 2023년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사회적 약자로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9세부터 24세)를 선정하고, 사목적으로 이들을 더욱 배려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노동사목소위원회는 생계를 위하여 노동 시장에 뛰어들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불합리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며 정규 교육 과정에서의 이탈로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교회 차원에서 돕고자 2022년 11월 8일(화)에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회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전구 기도 안내 리플릿'을 최종 선정하고 전국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16개 교구에서 주교회의로 보내온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금(2023년 3월 13일 기준, 총 4,265,309,986원)을 교황청에 전달하고, 한국 교회 신자들의 정성을 모은 지원금이 지진 피해 구호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교황님께 서한을 보내기로 하였다.
- 2023년 10월 4일~29일 로마에서 개최되는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를 위하여 2023년 5월 31일(수)에 성모 기도의 날 행사를 각 교구에서 교구장 주교의 재량에 따라 갖기로 하였다. 이는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는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이며 성모 성월의 마지막 날인 2023년 5월 31일(수)에 성모 기도의 날을 거행하여 줄 것을 각국 주교회의에 요청하였다.
-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생태환경위원회에서 마련한 다음의 2023년 주교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주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기로 하였다.
 - 강원도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방문(2023년 5월 16일)
 - 경기도 파주시 JSA 성당 순례 및 미사 봉헌(2023년 6월 6일)
-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2023년 12월 11일) 기념 미사를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봉헌하기로 하였다.
- 주교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선임하였다.
 - 교리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신철 주교
 -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
 -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
 -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서상범 주교
 - 순교자현양과 성지순례사목위원회 위원장: 구요비 주교
 -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장: 김종강 주교
 - 천주교용어위원회 위원장: 조규만 주교
-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제1회기 2023년 10월 4일~29일, 제2회기 2024년 10월, 이탈리아 로마)에 참가할 한국 주교회의 대표로 정순택 대주교를, 교체 대표로 손삼석 주교를 선출하였다.
-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8월 1일~6일) 기간에 3일간 진행되는 교리 교육을 담당할 주교로 김종강 주교(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장), 한정현 주교, 신호철 주교를 선정하였다.
-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를 표현하고자 주교들이 자율적으로 기부하여 조성된 '착한 사마리아인 기금'의 2023년 사용처를 검토하고, 외국 교회의 수도자 양성과 교황청립 로마한인신학원에 거주하는 가난한 나라들의 사제들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를 전국 사도직 단체로 인준하고 회칙을 승인하였다. 한편, 기존의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시그니스 서울,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가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로 통합됨에 따라,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의 전국 사도직 단체 인준을 취소하였다.
 - ▶주교회의 2023년 춘계 정기총회 첫날에 열린, 주교회의 상임위원회(2023년 3월 13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이 있었다.
-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로 양기석 스테파노 신부(수원교구, 1999년 사제 수품)를 임명하였다(3년 임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 내가 걸어가야 할 길

그리스도의 성혈 흡수 수녀회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 25)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는 이를 믿느냐?”라고 추궁하듯 물으시는 듯하다. 이 추궁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려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말씀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다르게 따르며 모시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참된 의미에서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 이 복된 시기에 새삼 돌아 볼 것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힘을 빌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말씀을 믿는가? 어릴 적부터 나는 가톨릭 성가 227번을 좋아한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엄청난 가사 내용에 놀라 주님께 고백하듯 성가를 부르고 있다.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에 늘 감사드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목마른 사람은 내게 오라. 무거운 짐을 진 자 멍에를 벗겨주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리.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리라. 나는 생명이요 진리이며 너희가 가야 할 길이라. 누구나 이 길을 충실히 걸으면 영원한 복락을 얻으리라.” 마디마디 성가 가사에 담긴 뜻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복된 길로 나아갈 바를 알린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존재이며 부활의 진리를 믿는다. 우리가 사는 우리 모두는 삶과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로 살지만 늘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고자 하는 삶이길 추구한다. 목마르고 힘든 우리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사는 존재로 사는 것이라 믿는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우리는 자신의 뒤통에 주어진 십자가를 인내로이 짊어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한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고통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눈물 흘린다.

요즘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힘겨운 것은 피하려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고통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기며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기도 하다.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는 하느님을 향한 순종이며, 우리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큰 은총에 감사드린다. 복된 이 사순 시기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내가 어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린다. 하느님 안에서 완성될 나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그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임을 깨닫는다. 주님, 제가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도 충실히 따라 걸을 수 있게 하소서!

기도를 기반으로 거침없이 질주하는 북신동성당

조정자 이사벨라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사목회장을 지낸 5대 김정호 빈첸시오, 11·12·13대 이화수 다미아노, 16대 강진열 발렌티노 그리고 현재 여성부 회장을 맡은 최귀정 실비아가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제단식 받이었던 이곳이 거룩한 성전으로 변모되기까지를 이 한마디로 함축해 버렸다.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묻는 물음에 돌아오는 답도 여느 성당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실천이 매우 섬세하고 구체적이다. 기도가 필요한 신자들이 스스로 혹은 주변의 권유로 주보에 이름을 게재하면 사제는 공지 때마다 강조하고 신자들은 기도 속에 그 이름을 새겼다. 일이 해결되거나 향상되면 기도 덕분에이라고 화답한다. 주고받음을 확실히 나타냄으로써 기도가 나눔의 토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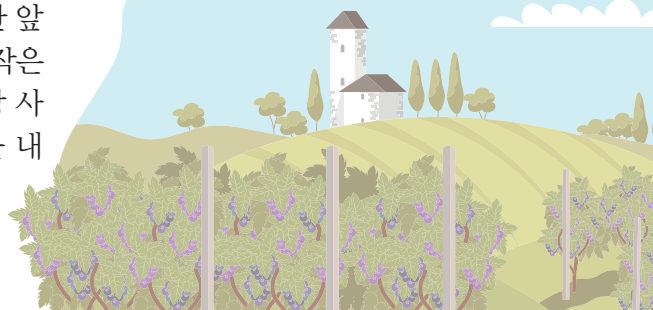
두드렸다, 힘차게 열렸다

성당 입구에 선 커다란 예수성심상이 북신동 별관을 내려다보인다. ‘나, 여기 있다.’ 마치 별빛을 따라가는 동방박사들처럼 신자들은 이 성상을 향해 산중턱을 험 험거리며 오른다. 26년 전 성당을 지을 무렵에는 허허벌판이었던 저 아래가 북신만과 죽림만 매립으로 신도시로 형성되면서 지금은 통영시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다.

교구 내에서 버스 노선이 없는 성당은 북신동성당이 유일하다. 매주 270여 명이 미사참례를 오지만 주차공간은 10여 대 남짓, 승합차가 두 대 있으나 미사 시간 앞두고 한계가 있고 성당 마당을 나서면 바로 4차선 산복도로가 가로질러 크고 작은 차들이 확확 달린다. 안전과 접근성에 있어 최악의 조건이다. 이런 성당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북신동 신자들이다. 상황을 직면하려는 용기와 고통을 내 몸에서 떼어 놓지 않겠다는 의지리라.



성모 동산





마산교구에서는 이런 불편을 잘 알고 낮은 평지에 새 성전 부지를 마련해 두었으나 회장단에서 그것을 팔아버렸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협의회를 구성했다. 주차장만 확보하면 어떠한 명당과도 견주지 못하리라, 이화수 다미아노가 성당 옆 부지를 불하받아 이 중에서 400평을 주차장 부지로 기부했다. 신자들이 한술 더 떠 아예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면 어떻겠느냐고 하자 그리하기로 하였다. 대략 250대를 가정하면 혼배미사는 물론이고 장례미사도 거뜬히 치를 수 있다. 한쪽에 셀프 찻집을 마련해 만남의 장소도 마련할 계획이다.

척박한 땅에서 피 올린 풍성한 결실

북신동본당은 1991년 한명조 라우렌시오가 땅을 기증함으로써 1993년 통영에서 세 번째로 설립되었다. 외벽을 암적색 벽돌로 두른 현대식 건축물로 예쁘고 단아하다. 성전 안으로 들어서면 장궤틀이 신자들의 손때로 반질반질하다. 이곳에서 무려 다섯 명의 사제가 탄생했다. 1997년 정진국 바오로 신부에 이어 하춘수 레오, 정연동 세바스찬, 한주인 마태오, 이슬기 안토니오 신부가 그 주인공이다. 14차가 끝나는 지점에서 돌계단을 올라가면 성모동산이다. 앞에는 긴 의자가 두 줄로 나란히 놓여 있고 여기에 무려 200명이 앉을 수 있다.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이 의자가 꽉 찬다. 미사 한 시간 전부터 미리 와 이곳에서 묵주기도를 하기 때문이다. 나이 든 신자들은 경사가 다소 위험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개의치 않고 올라와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대지의 풀들이 바짝 마른 2월에도 성모동산 주변은 푸르다. 식물에 물이 오르기 시작하면 오색의 꽃들에 둘러싸여 그때에는 기도에서 향기가 나겠다.

즐기찬 기도, 너울지는 성령

북신동성당은 밝고 활기차다. 기도는 묵직하고 생활은 가볍다. 이화수 다미아노는 그 비결이 '다가감'이라고 표현했다. 세 번의 연임을 하는 동안 모든 레지오 회합실을 돌아가면서 참관하고 식사 자리도 함께하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거기서 신자들의 고민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사제와도 공유하였다. 좀처럼 일치되기가 어려운 게 인간사이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정성과 지혜가 총체적으로 발동되어야 닿을 수 있는 이 다가감, 북신동 신자들은 여기에 매료되어 있다.

그 사제에 그 신자, 풍격風格이 있다

현재 사목을 맡고 있는 허철수 미카엘 주임 신부는 본당 사목에 특별한 중점을 두기보다 신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저 으샤으샤 신명만 붙여넣어 준다고 한다. 입구 게시판에는 외부 사제들을 초청한 사순 특강 일정표가 눈에 띈다. 겉으로는 유유자적해 보이나 안으로 부단한 노력이 게시판을 통해 알 수 있다.

북신동성당은 '남성 신자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는 가정에서부터 기틀을 견고하게 만들어 성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자매들은 마음 놓고 교회 봉사를 하게 된다고 하자 역대 사목회장들도 이구동성으로 공감했다. 최귀정 부회장은 뒤질세라 '여성 신자들의 노고'와 찬사를 조목조목 이어갔다. 아름다운 실랑이다. 김경호 빈첸시오는 이 성당에 25년째이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주임 사제만 바뀌었지 똑 같다고 한다. 그들은 뿌리가 어디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물들어 있다.

교구 사목 방문

일시: 3월 28일(화)
본당: 대방동/ 중동
일시: 3월 30일(목)
본당: 덕산동/ 여자동

교구/본당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모임 및 월례미사

일시: 3월 30일(목) 13:30
장소: 교구청

신앙대학

일시: 4월 1일(토)~2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위원회/기관/단체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안내

일시: 4월 2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마산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월간 지금 '우리동네 공공이' 참여자 모집

일정: 4월 7일(금)까지 모집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내용: 주민강좌, 월간활동(행복한 마을살이를 위한 의제 발굴, 참여자들이 의논하여 직접 정함) 등
신청: 전화 또는 내방
문의: 070·8798·4807(사회참여지원팀 손경희)
▶활동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 인정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평생교육원 젊음의집 부모교육 개강 안내

일시: 4월 12일(수) 10:00~12:00(12회)
장소: 평생교육원 젊음의집/ 비용: 20만 원
주제: 적극적 부모 역할과 대물림된 부정적 양육법 개선하기

목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적극적·협력적이며, 대물림된 부정적 양육법을 개선할 수 있다.
문의: 010·2187·6872/ 055·255·8295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일시: 4월 17일(월)~20일(목) 13:00~17:00
장소: 창원파티마병원 5층 파티마홀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누구나
문의: 055·270·1648, 1650
fatima21@fatimahosp.co.kr

2023년 성모술술타를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일정: 매월 둘째 주 금~주일 2박 3일
(4월 7일~9일/ 5월 12일~14일/ 6월 9일~11일)
문의: 010·3209·3955

성모술술타를 환자를 위한 치유 소피정

치유 소피정: 4월 15일(토)/ 5월 20일(토)/ 6월 17일(토)

●성모술술타를 무료휴양체험

일정: 1주일(4월 15일~20일/ 5월 20일~25일/ 6월 17일~22일)
대상: 환우 및 질환자(우울증 제외)
문의: 010·3209·39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재속맨발가르멜회 마산가르멜산 성모공동체 회원모집

일시: 모임~5월 22일(월) 10:00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대상: 만 55세 미만 신자
문의: 담당자 010·3191·8315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3월 27일(월) 19:00	중앙동성당	성령세미나-제1강 하느님 사랑	임성섭 유스티노 신부(청소년국 부국장-청년성령 담당)		010·5247·9900
진주지구	3월 27일(월) 19:00	진교성당	부활의 증거자	고태경 율리아노 신부(진교본당 주임)		010·3846·1980
청년	매주 (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4월 2일(주일) 10:00	서울 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한국외방선교회		최정열 신부 010·4055·5047/ kmsvocation7526@gmail.com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꽃요셉과 분재를!



40년 분재 경력. 분재/보경/가드닝 개인, 그룹, 기업체, 관공서 레슨 및 출강
상담 꽃요셉 010)7221-0874
NAVER 검색 '서경분재원'
인스타그램@bonsai.artist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장의 120만원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제정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힐데 로션 100ml, 힐데 크림 50ml, 힐데 샴푸 400ml, 힐데 크림 50ml, 힐데 크림 150ml, 힐데 크림 150ml, 힐데 크림 150ml, 힐데 크림 150ml, 힐데 크림 150ml, 힐데 크림 150ml

롯데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이탈리아 순례 4월 23일 출발
13박 14일 595만원

나가사키 순례 4월 24일 출발
3박 4일 119만원

성모발현지 순례 5월 14일 출발
12박 13일 425만원

bora (주)보나투어 02)732-4578
www.bonatour.co.kr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아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곡선의 삶

박정아 안젤라 동화작가/ 가톨릭문인회

지난 명절 연휴에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결혼하고 두 번째다. 그동안 아버지를 찾아볼 여유도 없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매일 같은 날의 되풀이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살아온 것이다.

플라톤의 행복론을 보면,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재산, 조금 부족한 외모, 자신의 평가를 절반 정도로 인정해 주는 명예 등 조금은 부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순수한 행복이라고 말한다.

성경에서도 '참행복'에 대한 말씀이 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운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된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행복론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는 드물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현생에서 누리는 만족감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남편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남편 복이 없고, 초년의 가난으로 고생을 하면 부모 복이 없다고 말한다. 특히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삶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형편이 되고 더 나은 것을 가지게 되어야 행복하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 사회가 인정하는 목표 달성과 물질적 소유를 향해 빠르게, 더 빠르게 세상을 살고 있다. 때로는 남들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냉혹한 목적만을 위해 수단을 무시하기도 한다. 그리움이나 아쉬움 같은 시간이 고여 여유를 가질만할 사이도 없이 즉석에서 결론이 나오기만 바란다. 참고 기다리는 시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는 욕구와 욕망에 의해 고속도로를 달리듯 달려간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마음의 여유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길을 잃고 국도를 헤매는 여유로움 같은 것은 잊은 채 말이다.

삶은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또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질은 달라질 수 있다. 행복은 개인적인 것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 더 크다고 한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 서로 의지하고 어울려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렇다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 속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행복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 다름이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헤매고, 성모를 하는 동안 선물 같은 햇살이 비춰주었다. 다음 추석에는 국화꽃 한 다발을 안고 천천히 올라갈 생각이다.

서포선교본당 사순음악피정



서포선교본당(주임: 임성진 요한 신부)은 3월 12일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라는 주제로 사순음악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피정은 예전 청년성서봉사자들(팀명: 오이코스)의 봉사로 진행되었으며, 본당 신자들은 이번 피정을 통해 사순 시기 하느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다 함께 친교를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새 교구청 성사전담 사제관(야고보관) 축복식



새 교구청 내 성사전담 사제 공동숙소인 '야고보관' 축복식이 3월 19일 신은근 바오로 신부(교구장 서리)의 주례로 교구 각 국장 신부와 평형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되었다. 새 교구청을 건립하며 성사전담 사제들의 공동숙소를 건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야고보관'은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하여 사목하신 중국인 사제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 첫 입주 사제는 올해 성사전담 사제가 된 최봉원 야고보 신부, 이재열 안드레아 신부이다.



판관 기드온의 승리(판관기 6장 33절~8장 28절)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주님의 영이 들이닥치자 기드온은 용기백배하여 자기 집안인 아비에제르 사람들과 므나쎄 지파, 아세르와 즈불론, 그리고 납탈리 지파에 전령을 보내어 군사를 모집합니다. 동시에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확신이 필요하였던 기드온은 주님께 여쭙습니다. “정녕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렵니까?” 그는 주님께 표징을 요청합니다.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놓아두고, 이슬이 뭉치에만 내리고 땅은 말라 있으면, 다음 날에는 반대로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뭉치는 말라 있다면, 주님의 뜻이 분명함을 알겠노라고 말씀드렸고, 주님은 기드온의 요청대로 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삼만 이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하룻 샘 가에 진을 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군사의 수를 줄이기를 요구하십니다. 행여 이스라엘이 제 힘으로 승리하였다고 생각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두렵고 떨리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만 명의 군사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도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물 마시기 시험을 거쳐 통과된 자들만 데려가라 하십니다.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자 어떤 이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개처럼 물을 훔아 마셨고, 어떤 이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든 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개처럼 물을 훔아먹은 삼백 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삼백 명은 전시에 무기를 손에서 내려놓는 오합지졸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은 정예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낙담하였을 기드온을 시종과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그들이 보니 미디안족과 아말렉족, 동방인들의 수는 메뚜기 떼와 같았고, 그들의 낙타들은 바다의 모래만큼 많았습니다. 이 엄청난 수의 적 앞에서 기드온의 삼백 명의 군사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보리빵 하나가 굴러와 미디안 진영의 천막을 쓰러뜨리는 꿈을 꾸었다는 한 병사에게 그의 동료는 하느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해몽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는 삼백 명의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고, 병사들의 손에 나팔과 횃불을 숨긴 빈 단지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 단지를 깨트리고 한 손에는 횃

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미디안 진영은 대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다가 후퇴하게 됩니다. 후퇴하는 그들을 뒤쫓아 가면서 기드온은 에프라임 지파에 전령을 보내어 후퇴하는 미디안족을 앞질러 가서 요르단을 점령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 전쟁에서 기드온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 후 마흔 해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프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그들을 전쟁의 시작 때부터 부르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기드온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전쟁의 더 큰 공을 에프라임 지파에 돌림으로써 상황을 원만히 해결합니다. 한편, 승리의 기쁨에 취한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세습 왕권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말하며 이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합니다. 다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리품으로 얻은 금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에

봇은 성소에 모셔두는 형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기드온의 이 행위를 ‘불륜’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결국 기드온의 집안에 울가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자신의 성읍 오프라가 실로와 같은 성소가 되기를 바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리품으로 얻은 금은 실로 성소로 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요?

